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과의 관계

김선영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and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eo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기도와 충청도 소재 3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평균 112.23점, 3.95점, 2.03점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은 전공 만족도($t=3.320, p=.001$), 임상 실습 만족도($t=2.557, p=.012$), 실습 동료와의 관계($t=4.234,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돌봄행위는 전공 만족도($t=3.423, p=.001$), 임상 실습 만족도($t=4.364, p=.000$), 실습 동료와의 관계($t=3.70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전공 만족도($t=-2.404,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생명의료 윤리의식($r=.27, p<.01$)과, 대인돌봄행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17, p<.05$)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고, 대인돌봄행위 및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s between investiga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and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who hav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3rd and 4th grade nursing students who were attending three universitie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s a result of this study, nursing college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and biomedical ethics were scored as 112.23, 3.95, and 2.03 points,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t=3.320, p=.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2.557, p=.012$), and clinical peer relationship ($t=4.234, p<.001$), interpersonal care behavior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t=3.423, p=.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4.364, p<.001$), and clinical peer relationship ($t=3.708, p=.001$), and biomedical ethic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t=-2.404, p=.018$). Human rights sensitiv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biomedical ethics ($r=.27, p<.01$), and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iomedical ethics ($r=.17, p<.05$).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nursing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biomedical ethic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Keywords : Human Rights, Sensitivity, Ethics, Nursing, Students

본 논문은 부천대학교 2018학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on-Young Kim(Bucheon Univ.)

email: imife5210@bc.ac.kr

Received January 21, 2020

Revised March 2, 2020

Accepted April 3, 2020

Published April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의 대상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된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기본 권리로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가장 우선적인 권리이다[1].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삶 자체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갑질 논란, 난민 문제, 몰래카메라,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란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보건의로 분야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졌다[2]. 기존 보건의로 영역에서 인권은 주로 장애인, 노약자, 여성, 아동 계층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편견 질환이나 만성질환과 같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전반을 인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3]. 따라서 간호 교육에서도 단순히 환자의 건강관리만이 아닌,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 중심의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호윤리 교육에 더불어 사례기반의 생명의료윤리 및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4].

간호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간호술을 제공함에 있어 봉사과 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요구받으며, 법적, 윤리적 판단과 그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요구받는다[2]. 간호사에게 있어 환자 옹호 행위는 인권 관련 문제 상황을 지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5,6]. 이러한 행위의 첫 번째 단계가 인권 관련 상황을 인지하는 인권감수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감수성은 상황 판단능력과 더불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7]. 인권 행동에 대한 실천적 행위 변화를 위해서는 인권이 문제시 되는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3]. 인권감수성 훈련을 할 경우 인권의식 정도가 향상되며[8], 임상실습 경험이 인권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를 토대로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환자 옹호자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부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인돌봄행위는 경험적, 미학적, 윤리적, 직관적 측면이 혼합된 형태로 '간호사-환자'의 치료적 관계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행위라 할 수 있다[9]. 즉 대인돌봄행위는 직접 대인돌봄행위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인식하는 지각된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인돌봄행위는 알아봄, 동참함, 나눔, 적극적 경청, 칭찬함, 동행함, 위로함, 희망 불어넣음, 용서함, 수용함이라는 자질이 포함되며[10], 이를 통해 환자와의 관계를 촉진해 나갈 수 있다[11]. 대인돌봄행위를 통해 간호 대상자의 내적인 힘을 향상시켜 삶의 의지, 생활의 활력, 종교적 도움을 추구, 일상생활 관리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삶과 안녕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9]. 비록 지각된 대인돌봄행위 수준이라 하더라도 간호대학생의 대인돌봄행위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향후 임상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윤리적 문제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생명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2]. 윤리적 가치관에 형성되지 않을 경우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옳은 선택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갈등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13]. 간호사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에 따라 똑같은 윤리적 문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문제의 복잡성과 관련 직종 간의 관계가 얽혀 그 해결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명의료 윤리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2,13].

간호 교육 분야에서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같은 주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각각의 개별적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인권감수성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정도를 비교분석[2], 인권감수성과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3], 인권감수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6]를 조사한 소수의 연구가 있으며, 대인돌봄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분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대인돌봄행위의 관계[14], 대인돌봄행위 영향 요인[9],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대인돌봄행위[11,15] 등 소수의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관

련된 연구는 생명의료윤리교육의 효과성[12,13], 임상실습,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 교육이 윤리강령 인식, 윤리강령 적용 정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16], 환자권리 인식, 윤리적 가치관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계[1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와 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이다. 자료 수집은 자가보고형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설문지 작성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조사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우선 해당 간호대학에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학과의 설문조사 허락을 득한 후, 해당 대학의 교수 협조를 받아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 중 설문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 후 직접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조사지는 해당 대학의 교수가 수거하여 우편으로 취합하였다.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 0.30,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표본 수는 138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5부(회수율 90%)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21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은 국가인권위원회[18]에서 대학생 및 성인용 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평등권,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환경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생활권,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 노인의 행복추구권 등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Likert type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이며, 각 에피소드당 3문항으로 구성되어 0점에서 15점을 받게 된다. 인권 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인권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그 점수를 채택하지만, 비인권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전체 도구의 총점 0점에서 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71이었다.

2.3.2 대인돌봄행위

윤선희[10]가 개발한 도구로 알아봄, 동참함, 나눔, 적극적 경청, 칭찬함, 동행함, 위로함, 희망 불어넣음, 용서함, 수용함의 10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5개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매우 적다' 1점에서 '아주 많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돌봄 행위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윤선희[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5이었으며,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97이었다.

2.3.3 생명의료 윤리의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삶과 죽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이 고안하고, 권선주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 윤리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20].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 생명공학 7문항으로 총 9개 영역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type 4점 척도로 '반대' 1점에서 '찬성'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주[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기술통계로, 인권감수성, 개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개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비모수 검정으로, 인권감수성, 개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은 89.6%(190명)이었으며, 51.4%(109명)가 4학년이었다. 전체 44.3%(94명)는 종교가 있었으며, 42.0%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전공 만족도는 67.5%, 임상 실습 만족도는 63.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동료와의 관계는 89.2%가 좋음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2)

| Spec. | | n | % |
|--------|--------|-----|------|
| Gender | Male | 22 | 10.4 |
| | Female | 190 | 89.6 |
| Grade | 3rd | 103 | 48.6 |
| | 4th | 109 | 51.4 |

| | | | |
|--|--------------|-----|------|
| Religion | Have | 94 | 44.3 |
| | None | 118 | 55.7 |
| Education experience of regarding human rights | Yes | 89 | 42.0 |
| | No | 123 | 58.0 |
| Major satisfaction | Satisfied | 143 | 67.5 |
| | Moderate | 69 | 32.5 |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Satisfied | 134 | 63.2 |
| | Moderate | 78 | 36.8 |
| Clinical peer relationship | Good | 189 | 89.2 |
| | below normal | 23 | 10.8 |

3.2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 점수는 112.23 ± 10.37 점 이었으며, 인권감수성 하위 영역으로 상황지각 37.74 ± 3.87 점, 결과지각 37.71 ± 3.90 점, 책임지각 36.78 ± 3.85 점으로 나타났다. 에피소드별 평균 점수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12.83 ± 1.66 점,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11.43 ± 2.09 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12.77 ± 1.83 점, 평등권 13.01 ± 1.88 점,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12.15 ± 2.02 점,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 12.06 ± 2.05 점,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12.38 ± 2.24 점, 사생활권 12.02 ± 2.06 점, 환경권 11.44 ± 2.28 점,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2.08 ± 3.84 점으로 나타났다. 대인돌봄행위 평균 점수는 3.95 ± 0.51 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으로 알아봄 3.92 ± 0.62 점, 동참함 3.89 ± 0.57 점, 나눔 3.87 ± 0.62 점, 적극적 경청 3.90 ± 0.45 점, 칭찬함 3.74 ± 0.73 점, 동행함 3.94 ± 0.35 점, 위로함 4.07 ± 0.61 점, 희망 불어넣음 3.84 ± 0.70 점, 용서함 3.97 ± 0.61 점, 수용함 4.09 ± 0.27 점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 윤리의식 평균 점수는 2.03 ± 0.24 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으로 태아의 생명권 2.13 ± 0.72 점, 인공임신중절 2.21 ± 0.42 점, 인공수정 2.07 ± 0.51 점, 태아진단 1.92 ± 0.38 점, 신생아의 생명권 1.66 ± 0.44 점, 안락사 2.27 ± 0.42 점, 장기이식 1.86 ± 0.46 점, 뇌사 2.08 ± 0.37 점, 인간생명공학 2.07 ± 0.36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variables (N=212)

| Variable | Mean \pm SD | Possible Range |
|------------------------------|--------------------|----------------|
| Human rights sensitivity | 112.23 \pm 10.37 | 85-142 |
| Perception of situation | 37.74 \pm 3.87 | 26-49 |
| Perception of result | 37.71 \pm 3.90 | |
|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 36.78 \pm 3.85 | 8-15 |
| Episode 1 | 12.83 \pm 1.66 | |
| Episode 2 | 11.43 \pm 2.09 | |
| Episode 3 | 12.77 \pm 1.83 | 5-15 |

| | | |
|-------------------------------|------------|------|
| Episode 4 | 13.01±1.88 | 6-15 |
| Episode 5 | 12.15±2.02 | 7-15 |
| Episode 6 | 12.06±2.05 | 5-15 |
| Episode 7 | 12.38±2.24 | 3-15 |
| Episode 8 | 12.02±2.06 | 6-15 |
| Episode 9 | 11.44±2.28 | 4-15 |
| Episode 10 | 2.08±3.84 | 0-15 |
|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 3.95±0.51 | 1-5 |
| Noticing | 3.92±0.62 | |
| Participating | 3.89±0.57 | |
| Sharing | 3.87±0.62 | |
| Active listening | 3.90±0.45 | |
| Companioning | 3.74±0.73 | |
| Complimenting | 3.94±0.35 | |
| Comforting | 4.07±0.61 | |
| Hoping | 3.84±0.70 | |
| Forgiving | 3.97±0.61 | |
| Accepting | 4.09±0.27 | |
| Biomedical ethics | 2.03±0.24 | 1-4 |
| Right to life of fetus | 2.13±0.72 | |
| Artificial abortion | 2.21±0.42 | |
| Artificial insemination | 2.07±0.51 | |
| Prenatal diagnosis of fetus | 1.92±0.38 | |
| Right to life of newborn | 1.66±0.44 | |
| Euthanasia | 2.27±0.42 | |
| Organ transplantation | 1.86±0.46 | |
| Brain death | 2.08±0.37 | |
| Human bio-technology | 2.07±0.36 | |

Episode 1=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2=Right not to suffer illegal arrest, restriction; 3=Right to labor in migrant workers; 4=Equal rights; 5=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6=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7=Privacy rights in mental illness; 8=Privacy rights; 9=Environmental rights; 10=Right to freedom from imprisonment.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대인 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정도는 전공 만족도($t=3.320, p<.001$), 임상실습 만족도($t=2.557,$

$p<.012$), 실습 동료와의 관계($t=4.23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돌봄행위 정도는 전공 만족도($t=3.423, p<.001$), 임상실습 만족도($t=4.364,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t=3.70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전공 만족도($t=-2.404,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생명의료 윤리의식($r=.27, p<.01$)과 양적 상관관계를, 대인돌봄행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17, p<.05$)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12)

| | Human rights sensitivity |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 Biomedical ethics |
|-------------------------------|--------------------------|-------------------------------|-------------------|
| | r | | |
| Human rights sensitivity | 1 | | |
|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 .133 | 1 | |
| Biomedical ethics | .269** | .170* | 1 |

* $p<.05$, ** $p<.01$

Table 3. Differenc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and Biomedical ethic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 Spec. | | Human rights sensitivity | |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 | Biomedical ethics | |
|--|--------------|--------------------------|--------|-------------------------------|--------|-------------------|--------|
| | | Mean±SD | t(p) | Mean±SD | t(p) | Mean±SD | t(p) |
| Gender | Male | 108.05±16.68 | -1.773 | 3.86±.51 | -.898 | 2.05±.25 | .300 |
| | Female | 112.76±11.15 | (.078) | 3.96±.51 | (.383) | .203±.24 | (.860) |
| Grade | 3rd | 112.84±11.27 | .682 | 3.92±.50 | -.842 | 2.03±.24 | -.134 |
| | 4th | 111.73±12.45 | (.496) | 3.98±.52 | (.401) | 2.03±.24 | (.893) |
| Religion | Have | 112.60±12.26 | .350 | 4.00±.50 | 1.306 | 2.0±.27 | -1.822 |
| | None | 112.02±11.61 | (.727) | 3.91±.52 | (.193) | 2.06±.21 | (.070) |
| Education experience of regarding human rights | Yes | 113.38±11.52 | 1.166 | 4.02±.53 | 1.759 | 2.00±.23 | -1.437 |
| | No | 111.47±12.11 | (.245) | 3.90±.50 | (.080) | 2.05±.25 | (.152) |
| Major satisfaction | Satisfied | 114.22±11.88 | 3.320 | 4.03±.50 | 3.423 | 2.00±.24 | -2.404 |
| | Moderate | 108.25±12.89 | (.001) | 3.78±.50 | (.001) | 2.09±.23 | (.018) |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Satisfied | 113.88±11.31 | 2.557 | 4.06±.51 | 4.364 | 2.02±.24 | -.851 |
| | Moderate | 109.51±12.37 | (.012) | 3.76±.46 | (.000) | 2.05±.24 | (.396) |
| Clinical peer relationship | Good | 113.41±11.47 | 4.234 | 3.99±.50 | 3.708 | 2.02±.24 | -1.141 |
| | below normal | 102.91±11.20 | (.000) | 3.61±.47 | (.001) | 2.08±.22 | (.263) |

3.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으로 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정도는 112.23점으로 상황지각 37.74점, 결과지각 37.71점, 책임지각 36.78점으로 나타났다. 에피소드별로 평등권(13.01점), 노인의 행복추구권(12.83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12.77점) 순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지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2.08점),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11.43점), 환경권(11.44점) 순으로 낮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10가지 동일한 에피소드를 모두 이용한 한달롱의 연구[6]에서의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점수 66.8점, 20.7 점, 22.7점, 23.4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에피소드별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10.9점), 불법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8.9점),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8.1점) 순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3.6점), 환경권(4.2점), 사생활권(4.7점) 순으로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6가지 에피소드만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3]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정도를 조사한 김성은[5]의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은 학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노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 높은 인권감수성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가장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 비슷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전공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성별[3,6,7,22], 학년[3,22], 임상실습 경험[3,22]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여 향후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경험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실습 경험은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있으나 임상실습에서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환자존중

및 기밀보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5]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반복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인권감수성만이 아닌 간호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인돌봄행위는 평균 3.95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수용함, 위로함, 용서함, 동정함, 알아봄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백지원[9]의 연구 결과 3.82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하위영역 중 적극적 경청, 수용함, 위로함, 알아봄, 용서함 순으로 점수가 높아 하위영역별 점수분포에도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은선, 이숙[11]의 연구에서 대인돌봄행위는 3.66점, 칭찬함, 위로함, 알아봄, 희망 불어넣음, 수용함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대상의 연구[14]에서 대인돌봄행위는 3.57점으로 알아보기, 동참하기, 나누기, 적극적 경청하기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사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대인돌봄행위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대인돌봄행위는 자신의 대인돌봄행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돌봄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간호대학생은 임상실무 현장에서 간호의 주체로 활동하기보다 지시를 받고, 관찰이나 간접간호 활동을 주로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접적인 대인돌봄행위를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보다 이상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1].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도 대인돌봄행위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간호사 대상의 연구[14]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인돌봄행위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위영역 중 수용함, 위로함, 용서함, 동정함, 알아봄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타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11]. 교육현장에서 윤리, 인성, 인권 등이 강조되면서 간호교육이 강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돌봄행위는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 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 경우 기본간호술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임상 수행능력이 높아져 대인돌봄행위에 차이가 발생한다[9,11]. 또한, 상대적으로 임상실습 과정 동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다양한 갈

등을 경험하며 동료와의 관계 비중이 높아 임상실습 만족도와 실습 동료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대인돌봄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9]. 따라서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과 더불어 긍정적인 임상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과의 지속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습과정에 대한 디브리핑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술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는 평균 2.03점으로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간호대학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2.91~3.03점[17,21],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3.03점[13]보다 낮았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경아, 정계선[12]의 연구에서 간호사 2.90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17,21]과 임상실습 경험[16]에 따라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선행연구들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을 경우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감소된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선행연구 결과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교육을 통해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향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2.27점) 영역이 가장 높았고, 신생아 권리(1.66점)가 가장 낮은 반면, 김선영[13]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권리(3.39점)가 가장 높고 안락사(2.98점), 뇌사(2.79점)가 가장 낮았으며, 김미숙, 전민경[17]의 연구에서는 태아 생명권(3.26점)이 가장 높고, 안락사(2.68점), 뇌사(2.67점)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임상실습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은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의 윤리적 가치와 실습생으로 해야 할 역할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가 감소되고, 아직은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갖추지 못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12]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높은 생명의료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이 필요하다. 선행연구[17]에서 성별, 임상실습 경험 여부, 간호윤리교육 여부에 따라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는 전공에 만족도에 따른 차이만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의식의 차이는 연구마다[21] 차이를 보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은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대인돌봄행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일한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환자 권리에 간에는 양적 상관관계($r=.38, p<.001$)를 보인 연구[17]와 환자 권리인식과 인권감수성과 양적 상관관계($r=.29, p<.001$)를 보인 연구[22] 결과를 토대로 생명의료 윤리의식, 환자권리, 그리고 인권감수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돌봄행위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인돌봄행위와 인권감수성, 생명의료 윤리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대인돌봄행위는 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돌봄행위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 대상자의 삶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함께 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누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9]. 이는 상황 판단능력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인권감수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감수성이 높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을 경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권 및 환자 옹호에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향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인돌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과정이 상이한 3개 간호대학의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및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와 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인권감수성은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대인돌봄행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양적 상관관계 보였다. 인권감수성과 대인돌봄행위는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 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으로 간호대학은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속인 임상 현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실습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토의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며, 제 변수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137-151,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137>
- [2] S. E. Kim,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355-362,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4.355>
- [3] J. Y. Hwang, H. K. Choi,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4, pp. 454-464,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4.455>
- [4] K. H. Lee, S. W. Chong,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Vol. 8, No. 1, pp. 111-140, 2013.
DOI: <https://doi.org/10.29175/klrea.8.1.201304.111>
- [5] S. E. Kim,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355-362,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4.355>
- [6] D. L.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Vol. 6, No. 2, pp. 65-73, 2018.
<http://www.riss.kr/link?id=A105215610>
- [7] T. E. Shim, S. Y. Lee, "The study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types of perception in regards to human right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0 pp. 352-360,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352>
- [8] H. G. Ju, K. J. Lee, H. S. Kim,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2 No. 3, 169-179, 2013.
- [9] J. W. Paek, "Factors influencing on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10] S. H. Youn, *The clinical nurse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using communication skills which are interpersonal caring techniq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Seoul, Korea, 2005.
- [11] E. S. Shin, S. Lee, "The emotional intelligence, defense mechanism and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514-526,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514>
- [12] K. A. Kim, G. S. Jeong,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on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2, pp. 240-24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2.240>
- [13] S. Y. Kim,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 281-290,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281>
- [14] J. A. Han, M. J.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s on Anger,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3, pp. 87-98, 2016.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6.7.3.087>
- [15] Y. S. Son,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f nurses in medium sized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16] G. S. Jeong, "The differences of nurses' perception of the code of ethics, degree of application of nursing ethics and biomedical ethic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3, pp. 300-310, 201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8.24.3.300>
- [17] M. S. Kim, M. K. Jeon,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4, no.1, pp. 1-9, 2018.

DOI: <http://dx.doi.org/10.14370/jewn.2018.24.1.1>

- [1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9]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2, pp. 249-270, 1990.
- [20]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2003.
- [21] M. H. Lim, C. S. Park,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423-4431,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23>
- [22] J. Y. Kim, C. U. Lee, H. J. Lee, D. Y. Hwang, M. S. Kang, "Self-esteem,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s of patients' rights among cadets i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7, no.1, pp. 1-11, 2019.
DOI: <http://dx.doi.org/10.31148/kjmn.2019.37.1.1>

김 선 영(Seon-You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 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삶의 질, 죽음의 질, 생명의료윤리, 임종, 노인, 아동